

장성 '백양사 관광객 100만명' 돌파...전남 관광 이끌었다

군, 올해 주차장 무료화 등 성과...6~11월에만 70만명 넘게 찾아 전남 선호 여행지 조사 1위...장성 원더랜드 조성 등 시너지 기대

호남고속도로·고속철 하행선 전남의 첫 관문인 장성군이 가을 여행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장성군은 북하면에 소재한 백양사와 백암산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선 107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문객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르면 2021~2022년 70만여명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엔 88만여 명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국립공원에 지정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탐방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장성군과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가 지

난 6월 업무협약을 통해 주차장 이용료 무료화를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에 이어 2023년 전국 주요 사찰 입장료가 폐지됐으나 주차료만 승용차 한 대당 5000원을 내야 했다.

이에 장성군은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거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남정지구 주차장 3곳을 임대해 지난 6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결과 큰 효과를 거뒀다.

6월부터 11월까지 70만명이 찾았을 것으로 전체 방문객의 절반이 넘는 65%가 해당 기간에 몰렸다. 평년 같은 기간 방문객 수와 비교하면 평균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에기단풍으로 유명한 장성 백양사가 '전남 최고 가을 여행지'로 자리매김한 것은 인터넷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월 2주차 랭키파이 전남 선호 여행지 순위를 살펴보면 장성 백양사는 2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포인트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백양사 일원은 장성군이 지난달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장성 원더랜드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가 선정돼 향후 전망이 밝다.

2026년부터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백양사와 인접한 북하면 장성호관광지 일원에 관광 특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반세기 만에 100만 방문을 넘어선 백양사와 백암산이 장성 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승세 유지를 통해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백양사와 백암산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초로 100만 방문을 넘어섰다. 백암산이 보이는 백양사 전경. (장성군 제공)

고품질 나주배, 겨울철 과원 관리로 병충해 예방

낙엽·결가지 제거 등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 겨울철 과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올해 나주배 농가들은 지난 4월 개화기부터 이어진 잦은 강우로 검은별무늬병(흑성병)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흑성병은 과원 내 낙엽 등에서 월동하다가 이듬해 봄부터 포자가 성숙·비산·전염을 통해 발생한다.

과실에 생긴 흑색 병반 때문에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농가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는 치명적인 병해이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 과원에 떨어진 낙엽과 전정(결가지를 제거하는 것) 만으로도 흑성병을 포함한 월동 병원균 밀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과원 바닥에 방치된 비품 과실과 폐봉지는 가루각지벌레 등 각종 병해충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과원 밖으로 수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방치된 과실은 썩으면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병원균과 해충 등의 월동처가 돼 병해충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올해 '각지벌레', '배나무이' 피해를 본 농가는 해충의 주 월동처인 배나무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또 껍질 제거 작업은 월동 해충의 밀도를 줄이고 이후 살포하는 기계유제 등 약제 부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월동기 병해충 예방 작업과 토양 개선 등 철저한 과원 관리가 내년 안정적인 고품질 배 수확의 기반이 된다"며 "동절기 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글로벌 축하 행보

스웨덴에 축하사절단 파견 한승원 문학학교서 축하 행사

장흥군이 한강 작가의 역사적인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행보에 나섰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현지에서 지난 7일 김성군수 등 축하사절단을 파견했다.

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축하사절단은 노벨박물관 앞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현지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사진) 주 스웨덴 한국 대사관도 방문해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문화원과 문화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축하사절단은 시상식 당일인 10일에는 스웨덴 현지에서 스웨덴 한인회와 함께 축하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가 거주하는 장



흥에서도 10일 오후 11시 30분 축하 기념행사를 연다.

장흥군 안양면 울산마을 한승원 문학학교에서 주민과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시상식을 관람하고 수상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온 군민이 함께 축하하며, 장흥이 지닌 특별한 문학적 가치와 유산을 알려 노벨문학 도시의 면모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버섯 품종 산업화·진균류 활용 제품 개발 속도

버섯산업연구원, 팜스빌과 협약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결과 공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진균 소재의 산업화와 기업·연구기관의 상생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팜스빌과 손을 맞잡았다.

버섯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농업기술원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유통 전

문 기업인 팜스빌과 함께 진균류 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행만 전남농업기술원장과 김경제(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직무대리, 이병욱(주)팜스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진균류는 포자나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버섯, 사상균, 효모 등의 미생물 군으로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높아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소재로 지속 개발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버섯 품종 산업화와 진균류를 활용한 기

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공동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협약을 바탕으로 버섯을 포함한 진균류의 상용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버섯과 함께 버섯 균사체를 식품 소재화함으로써 버섯 산업을 확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개발된 버섯 품종을 활용해 지속적인 산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 '나비쌀' 프랑스 식탁 오른다...유럽 시장 공략 '시동'

총 18t 프랑스 수출 선적식

함평군 '나비쌀'이 유럽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함평군은 프랑스 현지 유통업체 에이스 푸드와 나비쌀 10만불 수출 MOU를 체결한 이후, 최근 학교면 소재 함평나비쌀공동사업법인(RPC)에서 함평나비쌀 18t을 프랑스로 수출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시장 진출은 지난 10월 함평군이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제)에 지자체 부스로서 참여한 데 이어 성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함평군은 최근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함평군 관계자들은 지난 5월부터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유수의 박람회에 총 6회 참여하는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베트남에 도시락김을 수출한 바 있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는 사인머스켓을 수출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나비쌀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해 세계 속에 유통될 수 있도록 글로벌한 유통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K-푸드 HC(Hampyeong County)라는 브랜드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사랑의 집짓기' 제44호 준공·입주식



지난 6일 입주식에 강진원 강진군수와 서순선 군의회 의장, 강진로타리클럽 나용은 회장과 회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석해 입주식을 축하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로타리클럽 연계 주택 신축 냉장고·에어컨 등 물품 지원도

강진군이 지난 6일 제44호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관내 다문화 가구에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강진로타리클럽의 주도로 진행됐다.

강진군의 지원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을 통해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완공됐다.

특히 군은 2000만 원 지원, 강진로타리클럽 1000만 원, 지정기탁금 1000만 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00만 원, 김중성 아너소사이어티가

1000만 원을 기부해 이뤄진 민간 협력으로 질량면 중흥마을에 24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다.

준공식에서는 집 열쇠와 함께 냉장고, 이불, 에어컨 등 다양한 지원 물품이 전달됐으며, 장학금 50만원도 지급돼 훈훈한 감동을 더했다.

이번 희망의 보금자리의 입주한 다문화가정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강진군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화순군이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에서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노인 결핵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중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있지만

무증상 경우도 있어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결핵실로 방문하면 된다. 결핵 검진은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진행되며 판독 결과 결핵의 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될 시 가래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면역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결핵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취약계층 난방시설 점검 등

담양군이 내년 봄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은 이 기간 행복이음을 통해 입수된 위기정보 대상자나 고립은둔 청장년 등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

한다. 또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주거취약계층 난방시설점검 및 수리, 민간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겨울철 한파로 더욱 힘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